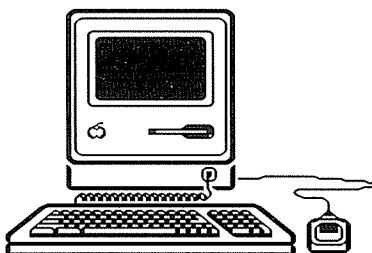


## ■ 옥소리, 무선키보드 캠블키드

옥소리社가 PC를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키보드인 캠블키드를 개발, 판매한다. 무선신호 수신기와 무선 키패드, 무선 키보드로 구성된 캠블키드는 적외선 수신 방식을 채택, PC 전자파에 의한 수신 장애를 줄였으며, 최대 1260BPS의 속도로 분당 600자 이상의 고속 전송이 가능하다.

특히 하나의 무선 키패드에 트랙볼



하드웨어



◇트랙볼과 커서키패드 기능있는 무선키보드 캠블키드

과 조이스틱 기능을 내장해 대부분의 PC 제어 명령을 키패드 하나로 처리할 수 있다. 무선 키보드는 일반 키보드와 동일한 자판을 제공하며, 유선 키보드와 마우스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무선 키패드만으로 PC의 전원을 제어할 수 있으며, 가격은 무선 수신기와 키패드가 3만3천원, 무선 키보드는 2만6천5백원.

## ■ 도시바 아메리카, 펜티엄 탑재 최초 노트북



다른 펜티엄의 절반밖에 안되는 도시바 T4900CT에는 인텔 75MHz 펜티엄 프로세서를 처음으로 장착한 50MHz 버스의 최고급 노트북이다.

6.9 파운드 무게의

이 제품은 16비트 스테레오사운드, 내장 마이크로폰, 8MB, 772MB의 고용량 하드 디스크, 그리고 65,000컬러를 보여주

는 10.4인치 액티브 매트릭스 (active-matrix) 컬러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 화면 퀄리티가 높고 출력이 자연스럽다.

이 제품에 내장된 75MHz 펜티엄은 인텔이 노트북용으로 특별 설계한 최초의 펜티엄 프로세서로서 같은 칩 패밀리인 60MHz 또는 66MHz 펜티엄이 5볼트인 반면 3.3볼트를 유지하므로 CPU로드에 따른 열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다.

니켈금속 혼합 배터리를 이용한 시스템 동작 시간은 대략 1~1시간30분 정도이며 플러그 앤 플레이 지원을 위해 PCMCIA 타입 I과 II 확장슬롯을 제공한다. 가격은 7천4백99달러

## ■ 컴팩 데스크탑 PC 데스크프로 XL 590



컴팩코리아는 최근 90MHz 펜티엄이 탑재된 데스크탑 PC 데스크프로 XL590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TriFlex/PCI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경쟁 제품들에 비해 20% 이상 빠른

처리 속도를 지원한다고 한다.

데스크프로 XL590은 하드웨어 차원에서 바이러스를 검색해 주는 세이프 스타트 기능을 기본 제공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때마다 자동적으로 문제를 검색해낸다.

특히 이 PC는 256KB의 쌍방향 캐시를 추가, 일반 캐시에 비해 성능이 향상됐으며, 16MB 램과 PCI 로컬버스, 통합 32비트 이더넷 컨트롤러, 고해상도 그래픽스 2MB의 비디오 램 및 오디오지원이 가능한 키보드 등을 제공한다.

한편 이 제품이 64비트 프로세스 버스, 64비트 메모리 버스, 32비트 I/O버스의 장착으로 데이터 흐름을 최적화시켜주며, 이에 따라 기업 및 MIS 전문가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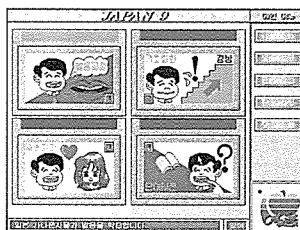
가격은 1GM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장착시 5백83만원(부가세별도)

## ■ JAPAN 9 일본어 회화학습 프로그램

일본어 초보자를 대상으로 만든 JAPAN 9은 전체 메뉴에 대해 통일된 키 기능과 마우스 작업을 지원하고, 메뉴구성도 매우 단순하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발음 교정부터 간단한 기초 회화까지 지원하는 학습 프로그램인 이 제품은 기초, 실용회화가 각각 25과, 16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각 학과마다 적으면 4개에서 8개 정도의 회화 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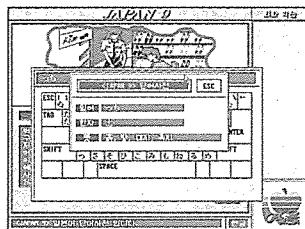


**소프트웨어**



◀JAPAN 9의 초기화면, 초보자를 위한 단순한 환경을 제공한다.

▼학습화면 어디에서나 단어사전과 문법참조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밖에 들어 있지 않아 전체 학습량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

이밖에 회화 학습도중 보조 메뉴 기능을 선택하는 식으로 단어 사전과 문법 참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단어 사전 메뉴를 선택하면 키보드 자판 모양의 입력 화면이 출력되어 일본어 자판을 몰라도 원하는 단어를 쉽게 입력할 수 있다. 하지만 하드 디스크를 차지하는 용량에 비해, 그래픽이나 학습 내용이 단조로우며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학습 정보가 없어 사용자층이 초보자로 한정되는 단점이 있다. VGA, 하드 디스크 10MB이상의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가격은 4만9천5백원 (부가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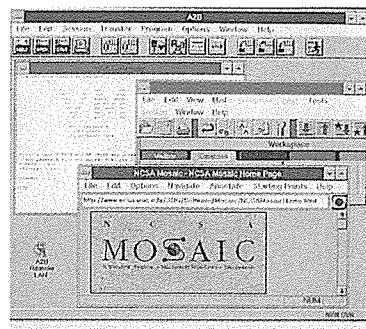
## ■ 통신 S/W NCSA 모자이크

인터넷을 수백만 사용자에게 열어주는데 공헌을 한 것은 일리노이 대학 NCSA (National Center for Supercomputing Applications)에 의하여 개발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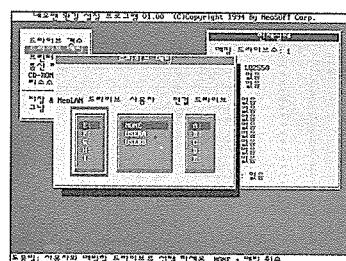
WWW(World-Wide Web) 브라우저인 모자이크이다.

모자이크의 매력은 그래픽 형식과 하이퍼텍스트 링크 외에도 정보의 높은 질을 자랑한다. 현재 모자이크는 X윈도우, 맥킨토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래픽 형식이 단순해 정보 검색이 쉽다. 모자이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텍스트 기반 네트워크 환경을 멀티미디

어로 바꾸어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저장된 것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메인프레임, 미니컴퓨터, 인터넷 등 다른 TCP/IP호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데스크톱을 이용해 액세스할 수 있다. 마우스 클릭만으로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액세스할 수 있으며 주소를 외울 필요없이 그저 접속만 하면 된다.



## ■ 간이네트워크프로그램 Neo LAN1.2



◇Neo LAN의 설치화면

아이에스엠사에서 제작한 Neo LAN은 개념상으로는 LAN과 비슷하지만, 실제 시스템 구성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형태이다. 즉 네트워크 구성에 기본 요소인 NOS, LAN 카드, 전용 케이블 없이도 네트워킹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Neo LAN은 전용 케이블과 소프트웨어로 간단히 Peer-to-Peer 방식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프린터는 최대 3대까지 지정해 사용할 수 있으며 모뎀을 이용한 원거리

제어 기능까지 지원해 프로그램에서 허용하는 한 상태 PC를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다.

한편 윈도우즈 환경에서도 Neo LAN에 등록되어 있는 드라이브나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즈 환경을 잘 활용하면 멀티태스킹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Neo LAN이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네트워크 방식이 아닌 일종의 편법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으며 LAN보다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서로 맵핑된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같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키면 간혹 한쪽 시스템이 다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격은 9만원 (부가세 별도, 2인기준)

### ■ 맥슨전자, CDMA용 단말기



성능과 기능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웰컴사와 라이센스를 체결하고 CDMA방식용 단말기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는 시스템 개발 3사에 맥슨전자를 포함, 모두 4개 회사다. 이 가운데 맥슨은 올해 국내 CDMA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에어터치사에 각각 1만대의 단말기를 납품키로 되어있어 주목받고 있다.

내년 1/4분기중 시험테스트에 내놓을 휴대형 시제품의 무게는 280~290g 정도, 앞으로 220~230g까지 경량화시킬 예정이다. 상용 시점인 내년 3/4분기쯤에 내놓을 단말기는 표준 배터리를 장착할 경우, 크기는 151.4×49.3×26mm 정도이며 무게는 235g 내외로 예상된다.



### 통신

기능상의 특징으로는 첫째 웰컴이 공급하는 칩셋이 내장되어 있는 rake receiver (갈고리방식 수신장치) 기술과 출력 조절, 신호의 코드화 기능 등이 있다. 그리고 최대 255개의 영문자 까지 정장할 수 있는 짧은 메시지서비스 기능을 비롯해 축신번호 확인, 슬립 모드, OAP(Over the Air Programming) 기능 등이 있다.

슬립 모드 기능은 단말기가 일정 주기마다 ON/OFF를 자동으로 반복하는 기능으로서 배터리의 수명을 크게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OAP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NAM과 비슷한 기능으로 가입자가 통신사업자의 구분없이 어느 사업자의 회선과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기능이다.

한국의 경우 가입자가 통화시에 한국이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신세기 통신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제조업체들이 추정하는 상용제품의 공급기는 수출용의 경우 6백~7백달러 선이다. 단말기의 국내 실제 가격은 웰컴의 부품 공급가와 국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 다소 상향될 전망이다.

### ■ 필립스사, 홈서비스 - 차세대 전화기 '필립스 p100'

전화기의 일반적인 업무를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제어할 수 있으며 PC기능을 부여하여 새로운 전자서비스까지도 가능한 전화기가 개발되었다.

최신의 통신 기술을 모두 통합한 가장 간편한 전화기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필립스사의 「Philips P100」의 구성은 해상도 320×240픽셀, 5인치 LCD 스크린이 있으며 최대 2백24개의 문자가 표시된다. 알파뉴메릭 무선 키보드가 있어 콜러에 대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그룹 리스트를 구성할 수 있다.

지방 전화사업자와 연계하여 스크린상에 발신자 ID가 나타나며 이름이나 전화번호 그리고 콜로그를 통해 발신자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 볼 수 있다. 발신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은 개인의 폰리스트에도 저장가능하다. 콜웨이팅(Call waiting), 콜포워딩(Call forwarding), 3자 통화(3Way calling), 리다이얼(Repeat call), 화상전화 (Visual voice mail) 등 지역 전화국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모두 제공 받을 수 있다.

P100의 두드러진 특징은 Auxiliary Connector Port가 있어 키보드나, 마그네틱 카드판독기, 키보드, 모뎀 등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와 유사한 스마트 카드를 스마트 카드 판독기가 있어 개인정보, 증권정보 뱅킹, 의학 정보 등 private transition<sup>1)</sup> 가능하다.

- 메모리카드 : 4MB • 모뎀: 2400 보드 • CPU : Intel 8086 마이크로 프로세서 • 파워 : 5W • 키보드 : 55키 (알파뉴메릭) • 키패드 : 12 POTS(기능키 5개 + 리다이얼, 핸드프리, 홀드, 뮤트 리슨인, 플래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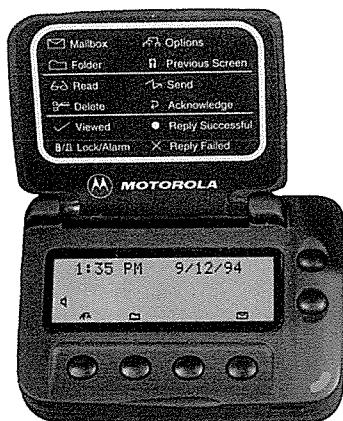
### FOCUS

은 NEC사의 다케마츠팀이 개발하고 있는 '입는 컴퓨터'로서 금세기 말까지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팀은 컴퓨터의 모습이 되도록 하면 밖으로 비치지 않게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키보드는 팔뚝 밑에, 디스플레이에는 머리에 쓰는 헤드폰에 붙였다. 사용자들이 조금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현장으로 달려온 응급요원이 손에 든 '센서'로 환자의 맥박과 체온, 그리고 혈압을 측정하면 이 데이터가 헤드폰 속의 스크린에 비

## ■ 모토로라사, 양방향 페이저 탱고



기존의 페이저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response/initiation 채널을 갖는 양방향 페이저 「탱고」가 출시되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고성능 수신감도의 탱고는 긴 메시지도 어려없이 받아볼 수 있으며 기억 용량은 최

대 100K byte, 음악회나 강의실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동경보 기능, 수신된 전화번호 표시 기능, 읽지 않은 전화번호 있음 표시기능, 경보기능, 알람기능, 자동 ON/OFF 기능이 있으며 저장된 메시지 가운데 선택적으로 답신을 보낼 수도 있다.

이 모든 기능을 소프트 키로써 작동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것은 데이터 전송기능으로서 RS-232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에 접속시키면 수신된 메시지를 디운로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든간에 그곳에 맞게 채널이나 주파수가 자동 조절된다.

## ■ NEC사, 입고 다니는 컴퓨터

PC의 소형화 추세에 맞춰 머지 않아 노트북 컴퓨터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편리한 컴퓨터가 나올 예정이다. 그것



◆NEC사가 개발중인 '입고 다니는 컴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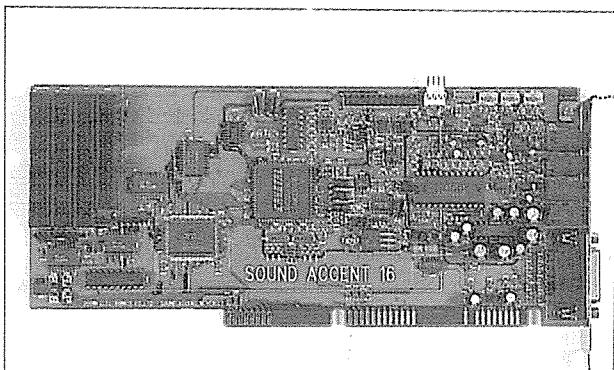
친다. 응급요원은 이 자료를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개인용 컴퓨터로 중계한다. 컴퓨터는 보내온 정보를 미리 컴팩트 디스크에 저장한 치료방법과 대조한 후 헤드폰으로 응급처치 방법을 즉시 알려 줄 수 있게 된다.

또 응급요원은 환자를 구급차에 실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에 환자의 상태를 데이터와 함께 8mm 비디오 영상으로 대기중인 의사에게 전송할 수 있다.

NEC사는 음성과 필적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를 21세기 초까지는 개발하여 글자판 전화 팩스 CD메모리와 카메라까지 갖춘, 이를테면 휴대용 사무실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옷' 까지도 개발할 계획이다.

## ■ 사운드액센트 16

두인전자가 내놓은 사운드 액센트 16은 저렴한 가격으로 PC에서 음성 인식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사운드 카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제품이다. 강원대 전자공학과 정익주 교수가 국내 최초로 영문은 물론 한글도 인식할 수 있는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사운드 액센트 16이 이를 기본 제공함으로써 음성 인식 기능의 대중화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이다.



◆ 음성인식기능 내장한 사운드 액센트 16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운드 카드가 자사와 관계있는 CD-ROM 라이브만 꽂을 수 있는 데 반해, 이 제품은 소니, 파나소닉을 비롯해 미쓰미와 IDE 방식의 총 4가지 CD-ROM 드라이브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또한 사운드 편집프로그램을 보면 모두 7개의 윈도우즈용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이중 오디오 스테이션을 이용하면 WAV, VOC, MIDI 포맷을 비롯, 음악 CD도 들을 수 있다.

보이스 액세스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보이스 액세스가 사용자의 주변 소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조정 단계와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도록 주입시키는 훈련 단계를 거치면 윈도우즈 뿐 아니라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음성으로 명령을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사운드 카드와 프로그램만으로 음성 인식을 실현했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사운드 카드의 기능을 한단계 뛰어넘는 색다른 시도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인간의 목소리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주변 잡음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사전 조정단계에서 적응하지 않은 잡음이 들어갈 경우 제대

로 인식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인다. 사용환경은 386DX 이상, 가격은 16만5천원 (부가세포함)

## ■ 원격진료의 정착

컴퓨터, 오디오, 비디오, 정보통신망 등의 최첨단 멀티미디어기술의 발전덕분에 지난해 11월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동화상(動畫像) 의료서비스가 개통되었다. 원격의료시스템은 원격화상회의 (Teleconferencing)와 원격의료영상시스템

팀 (Teleradiology) 기술이 통합되어 구성된다.

보건의료원과 병원이 비디오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등을 갖춘 원격화상회의시스템을 갖추고 광케이블을 통해 각종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와 의사가 화면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고 진찰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X-선, CT, MR 등을 디지털 영상으로 저장 및 전송하는 원격의료영상시스템을 통하여 의사가 원거리에서도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환자 사진을 확대 및 영상처리하여 자세한 부분까지 관찰,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원격의료시스템은 원격화상회의 기술과 의학영상정보시스템 기술에 보건의료원 정보시스템 기술이 추가된 고난도의 첨단시스템이다. 보건의료원내에 근거리통신망으로 구축된 의료원정보시스템은 분산데이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의료원내의 접수, 수납, 처방전달, 약국, 원무, 보험관리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환자 진료기록은 물론 혈액, 소변, 심전도 등의 검사기록을 전송할 수 있다.

원격의료의 적용분야는 대단히 광범위하다. 원거리 환자진단 및 치료, 일차진료 확대 및 환자 모니터링, 협의진료, 원격영상전송, 원격병리영상전송, 간호사교육, 의학교육, 병원경영자회의, 의료물품 공급자간의 회의, 의료진영입, 공중보건과 의학상식 전파 등 다양하다.

국가기간사업인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가정에까지 정보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가까운 미래에는 안방에서 국내외의 명의에게 진료를 받는 재택진료가 실현될 것이며 의료기술의 교류 확대는 물론, 병원경영자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⑦